

표준영정이란

표준영정이란 「대한민국 문화 체육관광부 훈령 제178호」 ‘영정·동상 심의규정’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영정에 대하여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한 영정’이다.

표준영정 제정사업은 1973년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충무공의 진영을 통일하라는 데서 시작되었다. 1973년 5월8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한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절차 공고(1973년6월30일)를 근거로 하여 시작이 되었으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제정 1996년 5월21일 문화체육부훈령 제60호/위 공고는 폐지)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¹⁾

박정희 정권의 문화 정책

물리적 수단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 정통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족주의> 담론을 제시하였고 시기에 따라 적절한 논리와 정책을 내세우며 통치기간 내내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미술의 경우 집권기간 동안 국가주도의 미술품 창작과 문예진흥 정책을 통해 체계적이고 선별적인 미술 진흥책이 실시됨으로써, 정부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민족주의적 미술 양상이 전개되었다.²⁾

1960년대~70년대의 박정희 정부의 특징적인 미술 정책은 본격적인 기념물 제작으로 구체화되었다. 현충사의 성역화와 동양 최대 규모의 이순신 동상이 세종로에 세워진 이 시기에는 김유신, 을지문덕, 강감찬 등 전승의 장수들이 민족 영웅으로 부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승유적지의 복원·정화 사업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구국영웅상 건립은 1966년 시작된 '애국선열들의 조상건립운동'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었다. 먼저 이순신상(1968년 건립)을 시작으로 김유신, 을지문덕, 강감찬, 유관순, 김구, 세종대왕, 이황, 정약용, 신사임당(1970), 사명대사, 김대건의 동상이 시내 곳곳에 세워졌다.³⁾

전승유적지의 문화재 정화사업으로는 경주 통일전, 서울 낙성대, 금산 칠백의총, 통영 제승당, 부산 충렬사, 강화전적지, 진주성, 남한산성, 해주산성 등이 정비되고 재건되었다.

호국선현과 국방유적으로 대변되는 당대의 기념물에 대한 국민들의 대규모 유적 관광이 동반됨으로써 한국사를 국난극복의 역사로 체험하게 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환기 시키는 효과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지도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대표적인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의 이미지를 현재의 통치자에게 자연스럽게 투영시키게 된다.⁴⁾

1973년 1월에 정부는 전통문화를 개발하여 문예진흥을 이룩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미술계의 목표는 미술의 진흥을 위해 연례적인 국전 개최 이외에 새마을 및 경제개발상 기록 등 **민족기록화 종합전**을 개최하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 이해에는 서울신문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애국선열조상위원회의 동상 설립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해로, 동상에서 초상화로 매체의 변화는 있었지만 선현을 선정하고 그 모습을 결정하는 권한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1) 한민족 정보마당, 선현의 표준영정 소개

<http://www.kculture.or.kr/korean/portrait/portraitAbout.jsp>

2) 안인기,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와 미술의 변화에 대한 연구」, 2011년, 2쪽

3) 안인기, 위의글, 5쪽

4) 안인기, 위의글, 6쪽

민족기록화와 표준영정 제작 배경

유지하는 정책이었다.⁵⁾

표준영정 지정의 사회적 논의는 서울·부산·충무 등 여러 곳에 건립된 충무공 동상의 외모가 작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되었고, 충무공 동상과 초상화의 외모가 문제시된 것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긴 때문이다.⁶⁾

표준영정 지정은 충무공 영정을 표준영정으로 지정하려는 가장 큰 목적으로, 충무공의 영정이 표준영정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되어 해마다 진해에서 봉행되던 충무공 탄신 제사는 현충사 종합정화사업(1966년~1975년)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대대적으로 복원·성역화된 아산의 현충사로 이관되었고 진해의 충무공 동상 앞에서의 제사는 금지되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충무공 탄신기념제를 열어 매년 참배하는 모습을 언론 매체를 통해 보여 주어 친일적 이미지를 지우려 하였다.⁷⁾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표방한 문화정책을 추진하며 민족을 대표하는 영웅상도 이순신으로부터 세종대왕으로 변화하였다. 세종시대와 박정희 시대를 문예중흥의 시대로 동일시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었고, 집권초기의 대표영웅이었던 이순신은 무신이자 반일의 상징으로서 박정희의 친일적 이미지를 희석하였고, 구국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강력한 지도자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갖는다. 때문에 매년 현충사 참배를 거의 거르지 않았고, 박정희의 기금 헌납에 의해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 건립이 추진되기도 했다.

유신체제 이후 문화적 우수성을 표상하는 새로운 지도자 이미지로 역사의 황금기로 박정희가 손꼽은 세종시대의 성군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지도자 상의 변화를 꾀하였다. 1970년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을 시작으로 세종대왕기념관 신축(1973년), 세종문화회관 건립(1975년), 세종대왕동상 제작, 여주 영릉 정비(1977년), 한글전용화 추진, 세종실록발간(1976년) 등은 유신체제가 새로운 문화적 부흥기이자 황금기임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되었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문예중흥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민족기록화사업으로 일본 전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민족주의와 경제발전으로 대변되는 박정희 정부의 통치이념과 부합하는 전통과 역사 재창조의 전형적인 실례이다.

5) 조은정 「표준영정에 대한 연구 - 공동체 의식과 감정통합의 균일화 과정」, 2016년, 3쪽

6) 조은정, 윗글, 4쪽

7) 조은정, 윗글, 16쪽

민족기록화와 표준영정 제작 배경

민족기록화는 ‘민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근대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67년에 처음 시작하여 1979년까지 당대의 저명한 화가들의 참여와 정부 지원으로 그려진 기록화들이다. 표준영정은 1973년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시작되었으며 문화체육부 장관이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영정에 대하여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한 영정을 말한다. 역사의 한 부분을 종이 위에 그림이라는 형태로 옮겨 놓은 시각 자료라는 사실 이외에도 둘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비슷한 시기에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민족기록화는 앞서 밝혔듯 박정희 정권 시기, 즉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그려졌다. 물론 후대에 제작된 민족기록화들도 있으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었고 현재도 소개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것은 박정희 정부 산하 작품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도 1차 연구 자료를 당대에 제작된 106점의 민족기록화로 한정하는 것이다.

표준영정 또한 1973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국책사업의 산물이다. 민족기록화가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떨어진 것과는 달리 현재까지 표준영정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된 표준영정의 수는 총 97점이다.

두 번째로 시기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 단적인 예로 표준영정의 대상인물이 민족기록화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만 하여도 21건이며, 가족, 스승(제자) 등의 관련 인물까지 범위를 넓히면 35건이다. 또한 1979년까지 지정된 표준영정은 21점인데, 이 중 15점이 민족기록화 작품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해당 목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민족기록화	표준영정	민족기록화 제작년도	표준영정 지정년도
01	박각순-살수대첩	을지문덕	1975	1975
02	정창섭-화랑도의 수련	김유신	1977	1975
⋮	⋮	⋮	⋮	⋮
14	안재후-여진정벌	윤관	1975	1979
15	김기창-명량대첩	유성룡	1975	1973

민족기록화가 역사에서 민족적 중대사를 취사선택하여 회화라는 방식으로 고정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민족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려고 했다면 표준영정은 ‘인물을 통한 기억의 공유’를 국가가 전담함으로써 전 국민적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⁸⁾

이처럼 표준영정과 민족기록화는 그 구상부터 초기 단계, 제작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이념적,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이것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작가이다. 민족기록화를 그린 작가 중 표준영정 작가로도 참여한 인물은 총 2명으로, ‘운보 김기창’이 민족기록화 1점, 표준영정 6점을 그렸으며 ‘일랑 이종상’이 민족기록화 4점, 표준영정 7점을 그렸다.

8) 조은정, 「표준영정에 대한 연구-공동체의식과 감정통합의 균일화 과정」, 로컬리티 인문학15, 2016, p233